

‘재미’와 ‘문학성’ 내세워 어린이 시장 공략하는 문학전문 출판사

문학출판에서 쌓은 명성 기반으로 새 영역에 도전

국내 문학출판을 선도하는 유명 출판사들이 잇따라 어린이책 시장에 뛰어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문예물 잘 만드는 출판사가 어린이책도 잘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기존 출판사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 이들 출판사들이 어린이책 시장에 진출한 것은 출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다. 성인독자층이 독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에서 어린이책 출판으로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문학 출판사들이 어린이책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어른 대상의 문학 출판에서 일가를 이룬 이들은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가 컴퓨터도 잘 만든다’는 이치를 앞세워, 어린이책 출판에서 다시금 각축을 벌이고 있다. 문학 출판사들의 어린이책 시장 가세에는 출판 환경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출판사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독자군의 창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실천문학사 이순화 편집장은 “실천문학사는 386세대의 출판사로 주 독자층이 점점 책에서 멀어지고 있는 추세다. 다양한 세대로 독자층을 넓혀가는 것이 생존의 관건인데,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 편집장은 어린이책 기획을 하지 않으면 문학 출판사들은 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문학동네를 제외하고 어린이책을 펴내는 문학 출판사는 공히 20년 이상의 사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독서시장에서 문학물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래저래 문학 출판사로서는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어린이책인가? 여기에는 하나의 역설이 존재한다. 디지털 시대의 초입에서 유일한 아날로그 세대가 어린이라는 역설이 그것이다. 비근한 예가 지난 3월 있었던 블로냐 국제도서전의 출판작 현황. 전년에 비해 전자책의

비중은 오히려 줄고, 종이책이 대거 출품됐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어린이는 유일한 아날로그 계층

지난해 연말, ‘미지의 대륙’에 뛰어든 문학과지성사는 출발이 순조롭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지아이들’의 실무를 담당하는 염현숙 대리는 “아동물은 목록이 1백권은 넘어야 영업 쪽에서 승부를 낼 수 있다. 적어도 3년간은 투자 기간으로 봐야 한다. 큰 기대를 걸지 않았는데 출발이 산뜻하다. 첫 책 《까보 까보슈》(다니엘 페나크, 윤정임)는 한달 만에 재판을 찍어 다른 출판사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책은 모두 6권으로 한달에 한 권씩 펴낸 꼴이다. 앞으로도 서둘러 내고 출간 간격을 지금처럼 유지할 생각이다. 어린이책인 만큼 더욱 공들여 만든다는 자세인데 장정부터 표지에 창을 내는 등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시행착오는 보완해가며 문학과지성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문지아이들’에 드리를 계획이다.

‘문지아이들’은 기획위원 체제를 취하고 있다. 김주연(숙대 독문과 교수), 장경렬(서울대 영문과 교수), 김서정(공주영상정보대 교수), 최윤정(문학평론가) 등 네명의 기획위원이 전공 언어권의 책을 기획하는 것이 강점이다. 외국동화는 다른 출판사가 소개하지 않은 작품의 발굴과

정확한 번역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불어권을 담당하는 최윤정씨는 “출간작 선정에서 국·내외의 구별은 없고, 작품의 우수성이 판단의 기준이다. 문학성이 뛰어나면서 재미가 있으며, 잘 읽히는 책을 고른다”고 기획방침을 밝혔다. 최씨는 출간된 책들의 의의를 하나하나 짚어줬는데, 다니엘 페나크는 국내 초역인 것에 의미가 있다. 《내가 대장하던 날》의 플로랑스 세이보스는 작가가 젊다는 점을 높이 샀고, 에디스 네스빗의 《보물 찾는 아이들》은 판타지 동화인 점에 주목했다.

제작에 들인 수고에 비해 반응은 느린 편

‘문지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상 연령을 차차 아래로 낮춰갈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문학동네의 ‘문학동네 어린이’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그림책에 주력하고 있다. 어린이출판 중에서도 틈새시장인 그림책 분야를 선점한 다음, 연령대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문학동네 어린이’ 역시 후발주자로 무난히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고 자평한다. 하종우 기획위원은 “유아용 그림책은 제작에 어려움이 많다. 제작비가 많이 들고 신경 써야 할 구석이 적지 않지만, 책 만드는 데 들인 수고에 비해 반응은 느린 편”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출판사의 관점으로 후발주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학동네 어린이’는 서점을 통한 판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까닭에 방문 판매에 의한 결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하위원의 얘기다.

지난해 5월 첫번째 책이 나온 ‘문학동네 어린이’의 목록은 벌써 꽤 두툼하다. 《난 황금 알을



어린이책 시장에 뛰어난 문학 출판사는 문학성과 재미를 듬뿍 담은 책을 만드는 게 목표다. 사진은 한 문학 출판사의 기획회의 모습.

낱을 거야!》(한나 요한젠, 이진영)를 펴낸 이래 30여종이 출간됐다. 한때 <김진경 선생님의 한자 동화>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번역물뿐이었다. '문학동네 어린이'를 맡고 있는 김지연씨는 "우리 것만 고집하진 않는다. 외국의 좋은 어린이책을 소개하는 일도 가치 있다"고 말한다.

번역물이 우세했던 것은 국내 필자의 집필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작업은 창작동화와 번역물을 동시에 착수했다. '문학동네 어린이'의 국내 창작물은 40여종의 기획이 완료된 상태다. 하종우 기획위원은 "문학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어린이책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국내 필자의 기근 현상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필자 기근이 최대 걸림돌

문학동네가 신인 등용문 제도를 마련한 것도 필자난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다. 올해 시작된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과 '서울동화일러스트레이션' 공모에 많은 응모작이 몰렸다. 어린이문학상에는 169명이 572편을 응모했고, 동화일러스트레이션에는 47명이 작품을 출품했다.

한편, 창작과비평사의 '좋은 어린이책' 공모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공모 제도와는 별개로 단행본 출간을 통한 신인 배출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 <샘마을 몽당깨비>의 황선미씨와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의 오승희씨가 그런 경우다. 신수진 아동편집장은 "임정자씨의 책 출간은 확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올해 안으로 두세명의 신인

이 '창비아동문고'를 통해 등단한다"고 말했다. 신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가 기성작가보다 더 적실하기 때문이다. '창비아동문고'는 장르의 확대도 꾀하고 있는데 '판타지 동화'에 관심이 많다.

문학세계사와 실천문학사가 어린이책에 쏟는 열의 또한 만만치 않다. 문학세계사는 1983년 펴낸 좋은 반응을 얻은 <어린이를 위한 한국명작문고>를 복간했다. <오즈의 마법사> 시리즈의 완역 출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즈 시리즈는 전14권 중 3권이 출간됐다. 김종해 대표는 "어린이 독서시장은 폭이 넓다. 다양하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출판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천문학사는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의욕은 대단하다. 실천문학사의 '어린이 세상'에는 두 종이 들어 있다. 임길택의 <탄광마을 아이들>과 김용택의 <콩, 너는 죽었다>가 그것. 두권 다 동시집인 점이 이채로운데, 김용택의 시집은 '동화 읽는 어른'이 선정한 20세기 아동문학 시집부문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문학 출판사들의 어린이책 출간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성인 책에서 쌓은 역량을 어린이책으로 펼쳐 달라는 주문이다. 도서출판 보림 박상용 주간은 "번역물 일색인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각자 특화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구태의연한 기획을 답습해서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 최성일 기자

성년 맞은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문화 전반으로 시야 넓힐 계획

'어린이도서연구회'(이사장 이주영)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연구회는 1970년대 후반 출범한 '서울양서조합'의 소모임 활동을 모태로 한다. 1979년 '세계아동의 해'를 맞아 시작된 양서협동조합의 '어린이부' 모임이, 이듬해 5월 어린이도서연구회 발족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여명이 참여한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회원은 3천명을 헤아린다.

회원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초창기에는 교사 회원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졌으나, 지금은 학부모 회원의 비중이 높아졌다. 1993년부터 학부모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결과, 10여개의 '낮분과' 활동이 활발하다. 9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동화읽는 어른'은 70여개 곳에서 2천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1997년 7월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연구회의 조직을 다지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연구회는 '거래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책'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어린이책에 대한 비평과 연구를 바탕으로 좋은책을 선정하고, 이를 도서목록에 담아 널리 알려왔다. 이런 작업은 작가와 출판사의 분발을 이끌어내며, 창작동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무엇보다 어린이책의 비평 풍토를 마련한 것이 연구회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이희정 사무총장(44)은 "연구회가 성년을 맞아 감회가 새롭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른스런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또, 전통있는 교육·문화 시민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비단 어린이책 뿐 아니라 어린이문화를 살피우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연구회의 20주년 기념행사는 '성인식'의 측면이 없지 않다(행사 내용은 '출판가 소식' 참조). — 최성일 기자